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⑨ '굿바이 솔로'(2006)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푸른 꽃은 푸르러서 예쁘고, 붉은 꽃은 붉어서 예쁩니다. 가을은 알록져서 아름답고, 겨울은 빛이 바래 아름답죠.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10여 년 전쯤에 방송된 어느 대기업의 공익광고 문구이다.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우니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에게 없는 모습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부닥치면서 상처받는 우리는 스스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한껏 움츠러든 기분이 든다면, 드라마 '굿바이 솔로'를 권하고 싶다.

'굿바이 솔로'는 한두 명의 주인공이 아닌 일곱 명의 등장인물들이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이야기를 펼치는데, 모두 각자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자신이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알게 된 민호(배우 천정명)는 가족을 등지고 미영 할머니(배우 나문희)의 집 옥탑방에 세 들어 살고 있다. 민호와 형제같이 지내는 친구 지안(배우 김남길)은 부모와 여동생이 장애인이며 가난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산다. 지안의 연인 수희(배우 윤소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남자를 바꾸며 사는 어머니를 경멸한다.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한 호철(배우 이재룡)은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처 때문에 결혼을 꺼리고, 그런 호철의 연인 마리(배우 김민희)는 전직 조직폭력배를 사귄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외면당한다. 마지막 인물인 영숙(배우 배종옥)은 학벌을 속인 것이 들통나 가족들과 따로 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어린 시절, 암에 걸린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물건을 훔쳐 팔았다는 아픈 기억과 그럼에도 어머니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이 영숙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KBS 드라마 '굿바이 솔로'. 사진출처=KBS 홈페이지

이렇게 한결같이 상처받고 소외된 인간들이 미영 할머니의 식당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유사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자면 민호는 자신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미영 할머니에게 쏟아내면서 치유해가고,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은 영숙은 죽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미영 할머니에게 털어놓으며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남편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 외에도 '굿바이 솔로'의 등장인물들은 누가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치유받으며 감화와 공감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특히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은 미영 할머니이다.

각자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미영 할머니 중심으로 소통하며 치유·공감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사랑하는 방법 배워

젊은 시절, 전처가 낳은 딸 미자(배우 윤유선)를 키우며 살던 미영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을 친다. 그리고 얼마 후,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불을 지르고 세상을 떠난다. 그런 와중 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미영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미자의 원망을 그대로 안은 채,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평생 입과 귀를 닫고 자신에게 벌을 주며 살아온 것이다.

한편 미자는 미영이 자신을 계속 찾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영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뺑소니 누명을 쓴 남편의 합의금을 미영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돈을 구하기 위해 아이를 납치해 미영의 식당에 숨겨놓기도 한다. 결국 미자의 죄를 모두 뒤집어쓰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미영에겐 그것이 미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등장인물들의 우여곡절을 담은 이 드라마의 핵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부제가 붙은 제16부에 있다. 민호와 수희는 어렵게 사랑을 이루고, 민호의 꿈인 남쪽 섬에 정착한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미영 할머니를 면회 온 영숙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어 올리며 미영에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민호와 수희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칠 때, 섬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위로 민호의 내레이션이 흐른다.

"할머니 나, 매일 매일 기도해. 이 세상 모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등 뒤에서 안아줄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할머니, 나는 행복해. 할머니도, 행복해?"

민호의 내레이션에 응답이라도 하듯, 벅찬 표정으로 사진을 보던 미영 할머니의 입에서 탄식처럼 "이뻐"라는 말이 나온다. 드라마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미영의 대사이다. 어째서 미영의 대사는 "이뻐" 하나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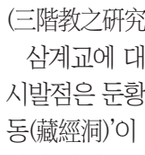
사진을 보면서 미영 할머니가 "이뻐"라고 말할 때, 민호와 수희가 예쁘다는 1차적인 의미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예쁘다는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부제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에서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로 확장되는 것이다. 또한 미영 할머니는 "민호 수희만? 나는?"이라고 묻는 영숙에게도 "이뻐"라고 답한다. 세상을 달관하듯 살아온 그녀에게는 민호도, 수희도, 영숙도 '이쁜' 존재이고, 이는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찬탄이기도 한 것이다.

민호는 수희를 만나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등 뒤에서 안아줄 단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데 민호는 자신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등 뒤에서 안아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늘 혼자였던 미영 할머니에게도 행복하냐고 묻는다. 그러므로 미영 할머니의 "이뻐"라는 대답은 "행복하다"는 대답과 같은 의미이다. 미영 할머니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앞에 영숙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삶에서는 각자가 외로운 '솔로'였을지라도 이제는 함께이기에 외롭지 않다. 이것이 드라마 제목인 '굿바이 솔로'의 의미이다.

드라마 '굿바이 솔로'는 "사람은 상처받고 상처 주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누구나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가치를 전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드라마의 애초 제목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인 것도 그래서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서구 열강의 둔황 사본 유출
日학자 삼계교 연구로 이어져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⑰ 근대기 삼계교 발굴

'삼계교'와 '지장교'가 밀접함이 확인되는 관계는 삼계교의 소의경전이 〈지장십륜경〉이라는 점과 '삼계교'를 '지장교'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계교는 창종주인 신행 선사의 열반 이후 왕실의 탄압을 받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은 〈역대법보기〉 〈개원석교록〉 〈정토군의론〉 등에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계교의 자료가 어떻게 세상에 다시 빛을 보게 됐을까요? 근대기 중국 둔황에서 다량의 문화유산이 발굴되며, 삼계교에 대한 사료들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자들의 연구가 이뤄졌는데 그 선두주자가 일본 불교학자 이부키 케이키(矢吹慶輝)입니다. 그는 일본 대동아지진과 중국 정풍운동으로 인해 연구 서적을 잃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저서 〈삼계교의 연구(三階教之研究)〉를 완성시켰습니다.

삼계교에 대한 근현대 학문 연구의 시발점은 둔황 막고굴 제17굴인 '장경동(藏經洞)'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장경동에서는 엄청난 양의 고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왕원록(王圓籙)이라는 도사(道士)입니다. 그는 막고굴을 발견해 이곳저곳 알렸지만, 관청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소문을 듣게 된 서구 열강들은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둔황 막고굴을 찾은 영국인 마크 오렐 스타인은 왕 도사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수많은 한문 문서와 산스크리트 문서, 티베트어 문서, 불화, 고대 섬유 공예물 등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것이 불교경전 약 600여 권, 한문 문서만도 8102점에 달했습니다.

프랑스인 폴 페리오는 스타인보다 더 집중적으로 둔황의 유물을 유출합니다. 그는 1906년 9월 카슈미르로 들어와 1908년 2월 둔황 막고굴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던 그는 왕 도사와 원만히 협상해 석실 안까지 조사를 합니다. 페리오는 이를 통해 5000점을 가지고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외국으로 국보급 유물들이 유출된 것을 안 중국 정부는 나머지라도 경사(京師)도서관으로 옮겼는데 이 수량이 총 9871점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둔황 문서가 베이징으로 이운된 줄 알았지만 교활한 왕 도사는 많은 경전과 문서들을 은닉하고 이를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에 넘깁니다. 오타니 탐험대는 스타인이 남겨 놓은 유물과 도사가 은닉한 경전류 등을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서구 열강에 매수당해 수많은 문화유산을 유실한 왕 도사를 참수시킵니다. 또한 잃어버린 둔황의 문화유산들을 '돈황겁여록(敦煌劫餘錄, 둔황에서 훔친 물건)'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수나라로 시작해 당 고종, 측천무후, 현종에 이른 시대의 중원불교가 저 멀리 둔황과 안서지방까지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둔황 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둔황 문서 가운데에는 이 시대의 사경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장안 등에서 조직적인 사경작업이 이뤄지고, 그 경전들이 변방의 도시까지 유통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둔황과 안서에 대운사, 용흥사와 같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대찰들이 왕실을 통해 조성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둔황 사본 중 삼계교 경전이 많이 확인되는 점은 둔황에 반영된 종교적 다양성도 시사합니다. 당시 둔황에는 라싸의 티베트 망명승들이 적지 않았고, 수당 양조의 핍박을 받던 삼계교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에서 쫓긴 조로아스터교(현교), 기독교 정통파에 쫓기게 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경교)등도 둔황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는 둔황의 국제성과 문화·사상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둔황의 문화유산을 유출한 스타인과 페리오의 자료에 힘입어 야부키 케이키는 역사 속에 묻혀있던 삼계교를 다시 세상에 알렸습니다. 문화유산 약탈과 유출로 인해 삼계교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이뤄질 수 있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송림사 주지〉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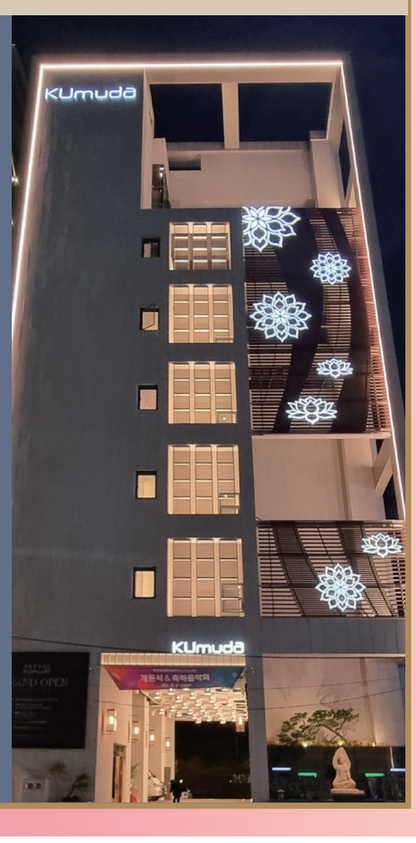
재)명경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층별 시설 안내	
옥상	하늘법당
8F	KUmuda
7F	ResMaison
6F	
5F	다목적 룸 & 법인사무국
4F	LAB XXIV by KUmuda
3F	KUROMATSU
2F	In Earth Coffee
1F	주차장 및 힐링휴게공간
B1	공연장
B2	필라테스 & 요가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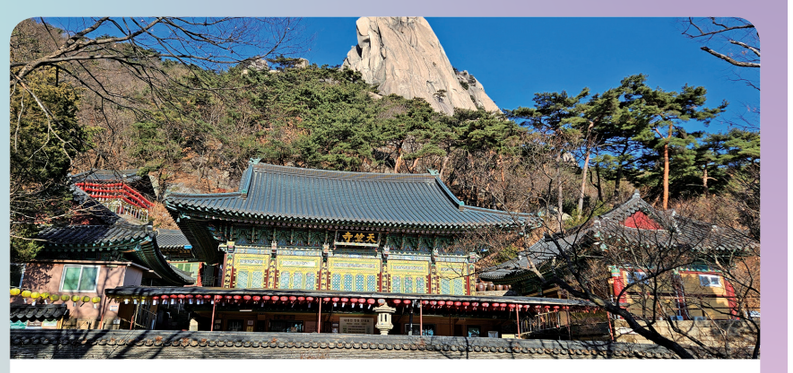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Tel. 051-702-1300



대한불교조계종
장지산 용암사
주지 혜공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파주시 혜음로742-28
☎ (031)942-0265





천년기도가피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천축사
회주 무소 허운
주지 진성 능후
사부대중 일동

기도안내
신중기도 (매월 음력 1~3일)
산신기도 (매월 음력 16일)
관음기도 (매월 음력 24일)

일요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지장기도(영가천도재)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92-2
전화 02)954-1474
www.cheonchusa.kr
템플스테이 문의 02)954-1473